원효스님 삶과 사상 대하소설 나온다

박태순씨 '무애가' 집필중 … 全 5권 2000년 출간

'원효'. 너무나도 친숙한 이름. 그 이름(元曉)처럼 민족문화의 새벽을 밝혀준 위대한 선각자.

원효스님의 일대기를 다룬 첫 대하소설이 집필되고 있다. 중견 소설가 박태순씨(56)는 충북 단양에 있는 한 농가에 칩거하며 원효스님의 삶과 당시 시대상을 조명한 대하 소설 〈무애가〉(가칭)의 집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백자 원고지 1만장 가량이 될 이 소설은 전 5권으로 오는 2000년경 한꺼번에 '한길사'에서 출간 예정이다. 춘원 이광수와 남정희씨가 원효스님을 다룬 소설을 펴내 대중적으로 호응받았으나 원효스님의 이야기가 방대한 대하소설로 창작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태순씨가 원효를 소재로 한 소설을 구상한 것은 지난 70년대부터. 그는 지난 85년 한길사에서 펴낸 계간지 '오늘의 책'에 원효스님의 족적을 찾는 기행문형식의 '원효기행'(450매 분량)을 발표한 바 있고 서울신문에도 원효스님에 대해 연재했을 정도로 원효스님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많이 수집해왔다.

박씨는 "시대적으로 삼국통일(660년)의 전야에 태어나 화쟁원융사상으로 격변의 시대를 이끈 원효스님(617~686)을 한번 대하소설로 다뤄봐야 겠다는 생각을 늘 해 왔다"면서 "원효스님은 고대노예제도사회에서 인간해방관을 가진 선각자로서, 왕과 귀족위주의 특권 이데올로기로서의 불교를 민중들의 불교로 이전시킨 보살행 실천자이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진정으로 구현한 위대한 자유인이다. 원효스님이야말로 분단상황인 현재 이 시대에, 그리고 산업사회에서 첨단정보화사회로 넘어가는 21세기에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말한다.

소설은 불교가 신라에서 정착된 시점인 553년경부터 시작된다. 즉 원효의 할아버지대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당시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의 역학관계와 풍습 등 시대배경이 광범위하게 다뤄진다.

1964년 〈공알앙당〉으로 〈사상계〉의 신인문학상을 받고 등단한 박태순씨는 시대적인 비극의 근원을 파헤치는 역사의식으로 〈정든 땅 언덕위에〉 〈신생〉 〈낯선 거리〉 등 현실성이 강한 작품을 써 온 소설가.

춘원의 〈원효대사〉가 식민지사관에서 요석공주와의 사랑과 허무주의에 치중해 있다는 비판을 가한 박씨가 그의 소설에서는 요석공주와의 사랑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

"그 시대 왕족들은 정략결혼의 희생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젊은 나이에 정략결혼에 희생됐던 요석공주와의 사랑은 세속적인 로맨스라기보다는 고통받는 영혼을 구제한다는 인간구원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원효스님이 이후 스스로 복성거사라 칭하고 하층민들과 어울리며 그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쉽게 풀이한 무애가를 가르치며 교화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지 않습니까."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불심시심 〈143〉

어린이가 되자

坐處凌頂雲 (좌처릉정운) 앉아 있는 곳 구름 이마 누르고
歸程踏鳥空 (귀정답조공) 돌아갈 길 새처럼 허공을 밟다
倚筇仍石上 (의공잉석상) 지팡이 의지해야 바위 위이고
回首更山中 (회수갱산중) 머리 돌려도 다시 또 산 속
落葉看流水 (낙엽간류수) 지는 잎에서 흐르는 물 볼 수 있고
疎鍾記晩風 (소종기만풍) 성근 종소리에 늦바람을 알겠다
還來留淨界 (이래류정계) 요사이 고요한 세계에 머물러 있어
顔髮覺成童 (안발각성동) 얼굴빛 머리칼이 어린이 됨 깨닫다.

징월(澄月)대사의 '봉서유거(鳳棲幽居)'라 한 시이다.

매우 높은 산사라 앉아 있는 곳은 항시 구름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이다. 거처의 높음을 전제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보다도 작자 자신의 고고한 기상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렇듯 높은 곳이니, 오고 가는 길목이 모두 새들이 나는 길과 맞닿아 있어 허공을 밟는 걸음이 된다.

'허공을 밟다(踏空)' 역시 묘한 시어이다. '허공'과 '밟다'라는 말은 결코 한 자리에서 어울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르는 길이 험하니 항시 지팡이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올라 봐야 결국은 바위 위이다. 더 지나간 것이 없다. 가도 가도 그저 바위라는 것이다. 얼마나 왔을까 하여 머리를 돌려 보면 또 산이다. 아무리 와 보아도 산을 벗어날 수가 없다. 여기서 '다시(更)'라는 한 글자가 매우 흥미로운 것이다. 아무리 '다시'라는 새로움을 추구하여도, 결국은 산 속이다. 시어의 묘미는 이러한 곳에 있는 것이다.

땅 위에 지고 만 나뭇잎은 시선에 잘 들지 않지만, 물 위에 떠내려가는 잎에서는 낙엽의 실상을 볼 수가 있다. 또 흐르는 물의 편에서 보면, 떠내려가는 낙엽에 의해서만이 물흐름의 실체를 오히려 여실하게 살필 수가 있다. 은은히 들리는 종소리에서 해저녁이 되었음을 아는데, 시어는 늦바람을 알다 하였으니, 소리를 실어나르는 도구로서의 바람을 말한 셈이다.

이렇듯 조용한 경지에 있다 보니, 어느 사이 어린이로 변해 있다. 이 어린이로의 변화 이것이 바로 부처됨의 상징이다. 사람의 참됨을 잃지 않은 순수의 경지, 이것이 성불이다.

이중찬 〈동국대 명예교수〉

17회 불교미술대전 작품접수 14~19일

불교미술 작가의 등용문인 '제17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이하 불미전)' 작품 접수가 14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원서교부는 9월 7일부터 16일까지.

1인당 2점까지 출품가능한 이번 불미전의 공모부문은 △회화 △조각 △탱화 △서예이며 출품 규격은 탱화의 경우 240㎝×180㎝ 이내, 조각은 좌대를 포함 가로 200㎝×세로 200㎝×높이 200㎝ 이내이다. 회화는 150호 이내며 서예(사군자 포함)는 135㎝×35㎝부터 200㎝×70㎝까지. 9월 24일 입상작이 발표되며 시상식은 10월 14일 오후 5시 공평아트센터이다.

입상작은 10월 14일부터 27일까지 서울 공평아트센터 1, 2층에서 14일간 전시된다.

문의 (02)739-1830 조계종 문화부.

불미전 운영규정 제정 심사와 운영 분리키로

조계종은 1일자로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이하 불미전)' 운영규정을 새로 제정 공포했다. 그동안 불미전은 심사와 운영에 있어 일부 시비가 일었는데 이번 심사와 운영의 분리를 법적으로 명확히 해 공정성과 함께 교계 최고 미술작가 등용문으로서의 권위를 한층 부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이 당연직 불미전위원장으로 된 이번 규정의 골자는 △심사위원은 각계의 추천을 받아 객관성을 띄도록 하고 특히 △'불교미술관련 스님 및 저명인사' 경우 매회 심사분야를 변경해 선정, 특정인이 한 분야를 고정적으로 심사할 수 없게 해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시켰다. 또한 기존 불미전 수상자 및 순수창작 불교미술작가들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후원키로 했으며, 불미전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불교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사용토록 했다. 이경숙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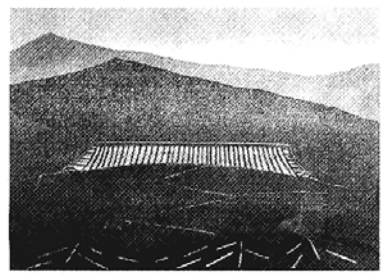
'천년의 향기-경주' 판화전

11~25일 경주문화엑스포 우정관
서울·대구·부산·포항서도 동시전시

불국사 에밀레종 남산의 탑과 부처님, 석담 등 경주의 유적 유물과 풍광이 중진판화가 24명에 의해 판화작품으로 새롭게 태어나 11일부터 경주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선을 보인다. 강승희 강행복 곽수영 황남채 홍익종 임영재 김상구 박경효씨 등 현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판화가 24명이 참여한 '문화의 향기 나눔회'(회장 김태수)는 '98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기획전 '천년의 향기-경주' 판화전시회를 11일부터 25일까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우정관내 월명실에서 개최한다.

수차례 경주를 현장답사하여 이루어진 이번 작품들은 목판화와 동 석판화 실크스크린 등 다양한 형식과 기술로써 경주가 가진 역사·정신적 가치와 아름다움, 신비를 보여준다.

특히 이번에 기획된 작품들은 복수 제작되어 서울의 김내현화랑(15~30일) 학고재화랑(15~25일) 대구 맥향화랑(15~30일) 부산 홍하갤러리(15~23일) 포항 대백갤러리(15~27일)에서도 동시에 전시된다.



◇황남채作 '사치고개'.

이경숙 기자

◇성각스님作 '길은 멀어도'.

성각스님 선서화특별전

10~15일 부산 국제신문사전시실

성각스님(남해 망운암 주지)의 선서화 특별초대전이 10일부터 15일까지 부산 국제신문사 4층 제1전시실에서 열린다. 지난 6월 서울에서의 전시에 이은 이번 부산전시에서는 산 물 해 달 새 나무 등 자연을 소재로 그린 그림 '길은 멀어도' '만다라' '자비의 꽃' 등과 달마도 관세음보살도 등 100여점이 전시된다. 전통선화기법을 그대로 살리면서 스님 특유의 개성적인 표현을 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의 수익금은 실직자 가족돕기에 쓰여진다.

이천 도자기축제 18~27일

제12회 이천도자기축제가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전통도자기의 본고장 이천 온천광장 및 도예촌에서 열린다.

이천문화원(원장 이은구)과 이천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도자기축제에는 △국제전통도예전 △현대도예공모전 △흙과 불의 정신전 △전통가마 불지피기 △전통옹기전 △도예교실 △물레돌려 도자기빚기대회 △한국도자기 특별유물전 △도자기전시판매 △다례시연 △도자기와 분재, 화훼전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벌어져 일반인들도 직접 참여해 초벌구이한 도자기에 글씨나 그림을 써넣어 작품으로 소장할 수 있고, 물레에서 직접 도자기를 돌려 만드는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다. 또 우수도자기를 30~50% 싸게 살 수도 있다. (0336)635-7976

◇18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이천도자기축제에서는 '내가 만든 도자기코너' '물레돌려 도자기빚기' 등 일반인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문화 단신

수월관음·지장보살도 국가문화재 지정 예고

문화관광부는 수월관음도, 지장보살도, 대약후보, 자치통감강목 등 4건을 국가 문화재로 지정예고했다.

이번에 지정예고된 수월관음도는 14세기 경의 고려불화로 합장한 선재동자가 위에 앉아 있는 관음보살에게 청법하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는 작품이다. 인물의 자세를 비롯한 금니 연화당초원문 등은 고려 수월관음도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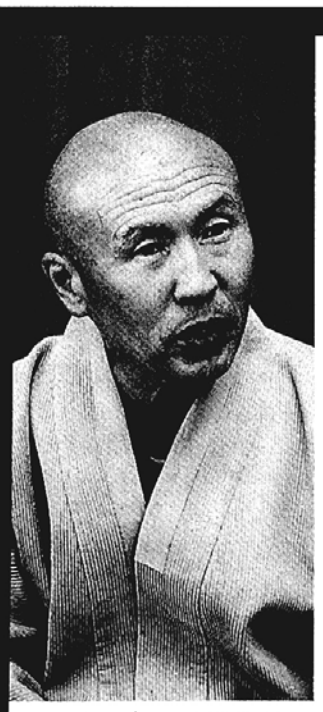
지장보살도는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이 함께 배치된 삼존도 형식과 표현기법 등에 있어 고려불화의 특색이 잘 나타난 여말선초의 그림이다. 주존인 지장보살이 바위위에 걸터앉고 좌의의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이 사선상에 위치한 이례적인 구도의 보살도이다.

12일 '길상 어울마당'

조계사 청년회 길상풍물원은 개원 10주년을 맞아 12일 오후 7시부터 조계사 대웅전 앞 야외특설무대에서 '길상 어울마당'을 공연한다. 길상풍물원 40여명이 택견 판굿 군영놀이 등으로 진행되는 마당놀이를 공연하고 보리수합창단과 판소리등호회 '소리랑', 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 노수철씨가 찬조출연한다. (02)785-4050

문화재사범 신고전화

문화재관리국은 1일부터 문화재보호법 위반사범을 제보, 신고하는 문화재사범 신고전용전화를 개설 운영에 들어갔다. (080-290-8000)



우룡큰스님 (울산 학성선원 조실)

"기도하는 시간의 길고 짧음보다, 절을 하는 횟수의 많고 적음보다, 마음을 잘 모아 염(念)을 하고 정성을 다해 한배 한배 절을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디 믿음의 주춧돌을 견고히 놓아, 일어나는 번뇌를 좇아가지 말고 정성껏 기도하십시오."

우룡큰스님 법문집

불교신행의 주춧돌

불교! 어떻게 믿고 실천해야 합니까?

일평생을 수행과 중생교화를 위해 살아오신 우룡큰스님의 불교신행 지침서.
신행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피하고 올바른 정진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과 신행방법 등을 자상한 문체와 일화들로 알기 쉽게 엮었습니다.

Ⅰ. 지성(至誠)으로 살자
Ⅱ. 불자의 살림살이
Ⅲ. 불자의 축원
Ⅳ. 불자의 기도
Ⅴ. 일체고액을 벗어나는 길
Ⅵ. 불교신행의 주춧돌

신국판 / 240면 / 값 5,000원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필독서

관음신앙 관음기도법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이신가요?
관음기도는 어떻게 해야됩니까?
…… 알고 계십니까?

이 책에는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쉽고 재미있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의 가피와 기도성취를 원한다면 꼭 이 책을 펼쳐 드십시오.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B6 / 값 3,500원

예불을 통한 불보살의 가피!!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지음

많은 불자들이 아침저녁으로 예불문을 외우며 절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예불문 속에 담긴 의미를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약 예불문 속에 깃들어 있는 의미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 예불을 올린다면, 참된 예불은 물론 삼보의 가피를 쉽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불을 올리는 불자들이 궁금해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것들, 이 책에 모두 담았습니다. 신국판 / 값 5,000원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지음

절에 오래 다닌 불자들조차도 무심히 흘려보냈던 사찰 곳곳에 간직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들…….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찰 초입(初入)의 일주문에서부터 사물(四物), 석등, 탑 그리고 여러 법당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룬 이 책은 독자들에게 불교예술과 사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 신국판 / 값 7,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 · 팩시밀리 : (02) 586~9078